

# 코로나19 극복에 빛나는 '순천시민들의 착한 손'

## 성금 2억7백만원, 마스크 1만7천8백개 모여

3월 행정안전부의 인구통계에서 전남 제1도시로 올라선 순천시의 시민들이 인구수만 최강이 아닌 배려와 나눔의 정신도 최고인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순천시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사회적으로 심각해진 3월초 순천열린교회를 시작으로 순천농협등 금융기관과 각 협회에서 보내 준 성금에도 이름을 밝히지 않은 시민과 어린 고사리손으로 들고 온 돼지저금통의 동전까지 합쳐 약 2억7백만원의 성금이 모였다.

방역 마스크 9400여개와 천마스크 8400여개를 비롯한 손소독제, 누룽지, 배즙등 물품기부와 함께, ㈜현성에서는 순천지역 코로나19 방역의 핵심인 보건소의 선별진료소와 야간 상황실에 무료로 전기시설을 제공하는등 재능기부도 이어지고 있다.

가슴 따뜻한 소식도 들려온다. 매곡동에 거주하면서 압투병중인 오영목(73

세) 어르신은 불의의 사고로 잃은 아내를 생각하며, 결혼 35주년을 맞는 의미로 351만원의 성금을 기탁해 주위의 눈시울을 젖게 하기도 했다.

시민들의 자발적 봉사활동도 빛나고 있다.

순천모범온전자회와 사랑실은 교통봉사대 회원들은 자발적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택시와 자가용승차를 대상으로 한 달째 소독 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삼산동 청년회원과 방역전문업체인 ㈜엘스타에서는 지역내 영광마을 등 복지시설과 버스승강장, 원룸등 다중이용장소에 주말을 이용해 무료 방역활동을 펼치고 있다.

관내 24개 읍면동 이통장협의회와 주민자치회등 자생단체에서도 공동자율방역단을 조직해 지역내 공동화장실 등 취약지역과 어려운 가정을 방문해 방역활동을 실시하고 있고 자비로 구입한 마스크등을 나눠주며 코로나19 방역



일선에서 특별한 역할을 해내고 있다.

이외에도 월등면의 과수농가에서는 과수원에서 이용하는 고속살포기(SS기)를 다중이용시설 소독에 활용하는 등 코로나19 방역에 민관 구분 없이 총력을 펼치고 있다.

허석 순천시장은 "코로나19의 어려

운 과고를 넘기 위해 순천시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코로나19를 막아내겠다는 순천시민들의 '보이지 않는 손'이 더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보여준 시민들의 모습에 큰 자부심이 느껴진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순천/김경의 기자



## (재)담양장학회, 2020년도 장학생 90명 선발

(재)담양장학회는 최근 제58차 정기이사회를 열고 담양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인재를 위해 장학생을 선발하고, 다양한 교육환경 마련과 명품 인문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2020년도 지역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계획을 의결했다.

올해는 담양지명 천년을 기념하기 위해 2017년부터 조성된 미래천년장학금의 수혜자 2명을 포함해 담양장학생 63명, 등불장학생 4명, 임흥균등불장학생 2명, 최두호장학생 14명, 두봉장학생 3명, 허영호장학생 2명 등 총 90명 규모로 장학생을 선발했으며 재학여부와 한국장학재단 등 타 장학금 중복지원 검토 후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회에 걸쳐 신원미상으로 기탁된 등불장학금의 기탁자가 금성면에 거주하는 임흥균남으로 알려진 후 기존 등불장학금과 임흥균등불장학금의 통합관리로 의

용소방대원의 자녀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싶다는 기탁자의 의사를 존중해 임흥균등불장학금으로 통합운용안이 의결되었으며, 통합에 따른 장학금 운영은 2021년 장학생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의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8개교를 대상으로 한 지역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계획도 확정했다. 지원규모는 총 4개 분야 25억9천1백만원이며, 2020년도에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은 원거리 통학을 위한 에듀택시사업, 자유학년제 대비 진로탐구 프로그램 지원 사업이다.

이사장인 최희성 담양군수는 "장학금이 담양의 인재 함양 향명을 위한 밑거름과 양분이 되길 바란다면, 앞으로도 담양장학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노력과 교육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며 담양 교육발전을 위한 협조와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담양/이종욱 기자

## 장흥 안양면, 사랑과 정성 담은 밑반찬 지원사업

장흥 안양면행정복지센터(면장 송남신)는 안양면 생활안전협의회(김병진)과 (유)정인건설(대표 박경아)이 기탁한 이웃돕기 성금에 힘입어 지난 1일 '사랑의 밑반찬 지원사업'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최근 코로나-19로 경로당 휴관이 계속됨에 따라 집에서만 생활하시는 독거 어르신의 건강을 염려하여 바깥출입이 어려운 160여 가구를 선정하고 이장, 부녀회와 함께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날 새마을부녀회장(회장 박신자)을 비롯한 부녀회원들은 마스크 착용 등 위

생에 철저히 주의를 기울이며 영양만점 밑반찬 5종을 준비했다.

송남신 안양면장은 "바쁘신 와중에 밑반찬 나눔 활동에 참석해 주시고 이른 아침부터 반찬을 정성껏 만들어주시는 새마을부녀회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반찬을 전달 받으신 분들이 맛있게 드시고 좀 더 힘을 내시면 좋겠고, 아울러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항상 실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선욱재 이장자치회장은 "어려울 때일 수록 면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이장들이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더욱 관



심을 기울이겠다"고 전하며 사랑의 밑반찬 지원사업을 준비해 준 면 행정복지센

터에 고마움을 전했다.

장흥/정양석 기자

## 1974년생 모임 '칠사회'나주시에 생수 1만병 기탁

### 정미남 회장 "방역 담당자, 취약계층 목은 갈증 해소되길"소감

나주시는 1974년생 주민 모임인 '나주시 칠사회(회장 정미남)'에서 코로나19 방역 근무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500ml생수 1만병(800만원 상당)을 기탁해왔다고 3일 밝혔다. 정미남 회장은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는 시공무원, 방역 담당자, 국군장병 등을 비롯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목은

갈증이 해소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기탁 소감을 전했다.

강인규 시장은 "소중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정미남 회장과 칠사회 회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코로나19 사태 종식까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침체된 지역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이명열 기자



## 완도군, 코로나19 방역 최전선에서 감사 편지 받아

### 강남세브란스 병원장, "완도군민의 응원 담긴 전복 큰 힘이 돼"

완도군은 지난 2일,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강남세브란스병원으로부터 감사 인사가 담긴 서한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군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월 12일 대구·경북 지역에 전복을 보낸 데 이어 3월 25일에도 완도 전복 양식 어업인들이 뜻을 모아 우호 교류 도시인 서울시에 원기 회복과 면역력에 좋은 전복을 보낸 바 있다.

서울시에 전달된 전복은 먹기 편하게 손질된 '순살 찹 전복'이며, 1만 명이 먹을 수 있는 1330kg를 보냈다.

서울시에서는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애쓰고 있는 국가 지정병원 및 거점병원 종사자들에게 전달했다.

이에 강남세브란스 운동성 병원장은 "코로나19 방역 및 치료 업무에 열공과 손이 부르트고, 수면 부족에 목까지 쉬어

가며 소임을 다 하고 있다"며, "완도군민의 응원이 담긴 전복은 근무자들에게 큰 힘이 되었고, 질병에 대한 두려움과 슬픔도, 서로에게 건네는 이런 따스함으로 반드시 극복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한편 완도군은 서울시와 2014년부터 우호 교류 협약을 맺었으며, 군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지역상생교류센터에 참여하여 지역 특산물 판매, 관광·축제, 일자리 등의 다양한 지역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완도/장광식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 유진건설산업(주)

## 철근콘크리트공사

광주시 서구 상무누리로 14, 502

(062)-655-1370

대표이사 정길화